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TF Farming

* 파밍(Farming) 이란 게임 용어로 성장을 위해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뜻함

ETF 시장 성장의 전환점 - 확산에서 집중으로

자산배분/ETF
김인식
02) 6915-5472
kds4539@ibks.com

✓ ETF 시장은 320조 원을 돌파. 성장 요인 분석 결과 가격효과 중심으로 전환 중
✓ 국내 주식형은 주도주 집중, 해외는 AI 중심으로 수급 확산이 지속
✓ 2026년에는 가격 이후 수급·공급이 결합될 영역에 선별적 집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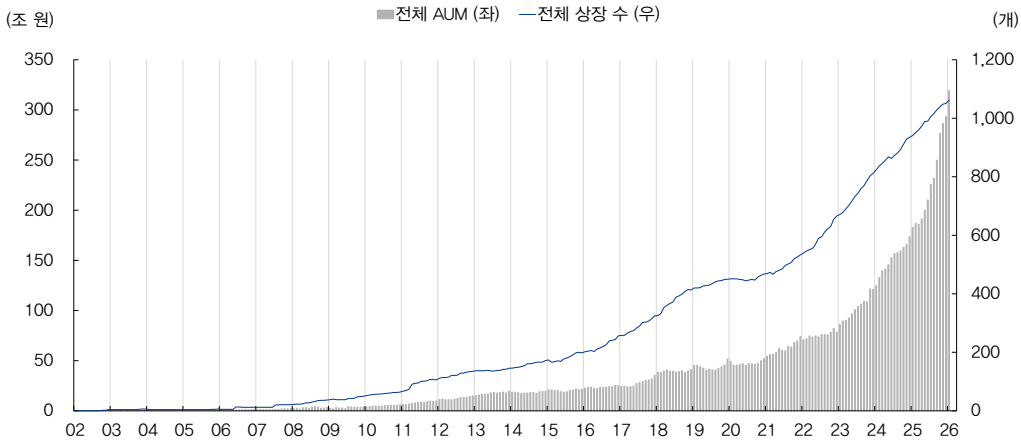
ETF 시장 급성장 - 25년은 가격 및 수급효과가 동시 작용, 26년은 가격효과가 주도

국내 ETF 시장의 AUM은 2026년 1월 14일 기준 320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약 50조 원 내외의 증가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124조 원 가량 확대되며 성장 속도가 크게 가속화됐다. 2026년 역시 연초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21.48조 원 증가하며 외형 확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26년 초반의 AUM 증가는 신규 자금 유입보다는 기존 ETF의 가격 상승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높아, 성장의 속도보다 구성에 대한 점검이 더욱 중요해진 국면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급성장은 단순한 자금 유입인지, 자산 가격 상승의 결과인지, 혹은 신규 상품 공급에 따른 외형 확장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ETF AUM 변화를 가격효과(기존 보유 ETF의 NAV 변동 × 전기 발행좌수), 수급효과(기말 NAV × 발행좌수 증감), 순상장 효과로 구분해 점검했다. 분석 결과, 2025년 시장 성장은 가격효과와 수급효과가 동시에 작동한 가운데 신규상장 효과(18.9조 원)까지 더해진 확산 국면이었으며, 자산군 전반에서 자금 유입이 확인됐으나 주식형 ETF가 전체 AUM 증가의 약 66%(82조 원)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주식형 ETF - 25년 확산에서 26년 집중으로 전환

주식형 ETF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해 보면, 2025년과 2026년 초반의 성격 변화가 보다 명확해진다. 2025년 국내 주식형 ETF는 가격효과 34.4조 원, 수급효과 15.5조 원으로 가격 주도의 성과 축적이 두드러졌으며, 반도체·조선·방산 등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 중심의 상승이 AUM 확대를 이끌었다. 반면 해외 주식형 ETF는 수급효과(20.8조 원)와 가격 상승이 결합된 구조로 AI·기술주 전반에 걸친 자금 유입이 동반됐다. 이러한 차이는 2026년 1월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국내 주식형 ETF의 AUM 증가(10.21조 원)는 거의 가격효과(10.7조 원)로 설명되며 수급은 정체 국면에 진입한 반면, 해외 주식형 ETF는 가격효과와 수급효과가 동시에 유지되며 글로벌 AI 및 기술주 밸류체인으로의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26년이 2025년과 같은 광범위한 테마 확산보다는 기존 주도 테마 내 선별과 집중이 강화되는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국내 ETF AUM 및 상장개수 추이 - 우호적 증시 환경과 맞물려 급성장 중인 ETF 시장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가격 이후 수급·공급이 결합되는 영역에 주목 - 국내 주도주, 미국 AI밸류체인

아직 1월인 만큼 2026년에는 상장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이며, 당분간은 기존 ETF의 가격 효과와 수급효과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오른 테마보다, 가격 상승 이후에도 자금 유입이 재개될 수 있는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식형에서는 AI·기술주·AI전력·AI반도체 등에서 2025년 수급효과와 신규상장 효과가 함께 나타났고, 2026년 초반에도 가격과 수급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어 글로벌 AI 밸류체인 전반이 핵심 집중 영역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반도체는 이미 가격효과 중심의 코어 테마로 자리 잡았으나, AI반도체·AI전력·방산·조선과 같이 2025년 수급 유입과 테마 확장이 병행됐던 영역은 향후 수급 재유입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결국 2026년 ETF 전략의 관건은 신규상장 기대에 앞서, 가격효과 이후 수급이 다시 붙을 수 있는 테마를 선별적으로 압축하는 것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도주 인접 영역, 해외에서는 AI 밸류체인 확산 구간에 대한 병행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ETF 시장 성과 분석 방식

1. **단일 ETF AUM(순자산총액) 변동**

$$\Delta AUM = \underbrace{Shares_{t-1} \cdot \Delta NAV}_{\text{(1) 가격효과}} + \underbrace{NAV_{t-1} \cdot \Delta Shares}_{\text{(2) 순수 수급효과}} + \underbrace{\Delta NAV \cdot \Delta Shares}_{\text{(3) 교차항}}$$

2. **순상장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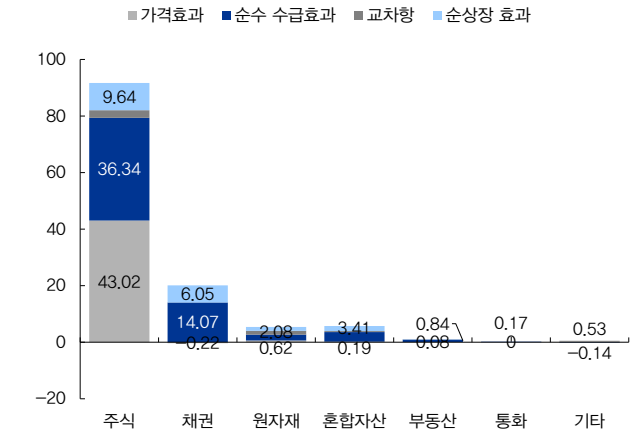
$$\text{순상장 효과}_i = \begin{cases} +AUM_{i,t}, & \text{신규상장} \\ -AUM_{i,t-1}, & \text{청산} \\ 0, & \text{기존 ETF} \end{cases}$$

3. **유형별 AUM 변동**

$$\Delta AUM_{Type} = \sum_{i \in Type} \{\underbrace{(\text{가격효과}_i + \text{수급효과}_i + \text{교차항}_i)_{\text{기존 ETF}}}_{\text{성과 분해}} + \underbrace{(\text{신규상장 효과}_i - \text{청산 효과}_i)}_{\text{공급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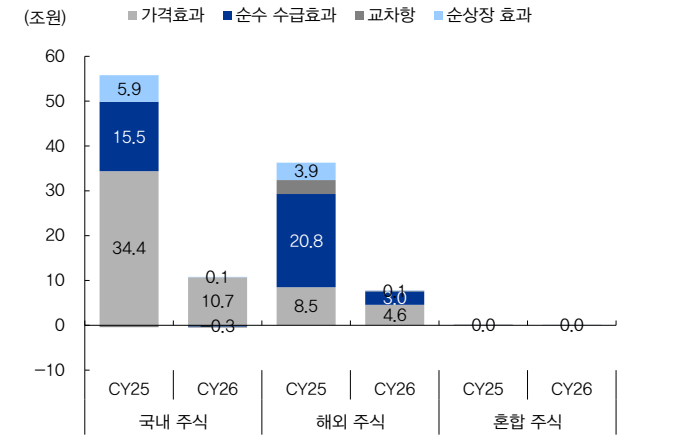
자료: IBK투자증권

국내 ETF 시장 기초자산별 연간 성과 분석(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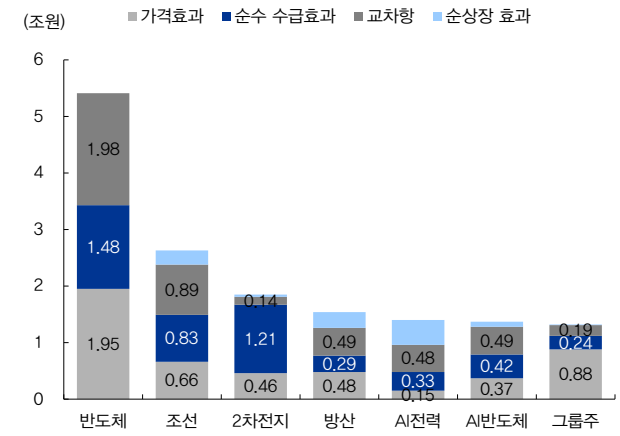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식형 ETF 연도별 성과 분석(CY25, CY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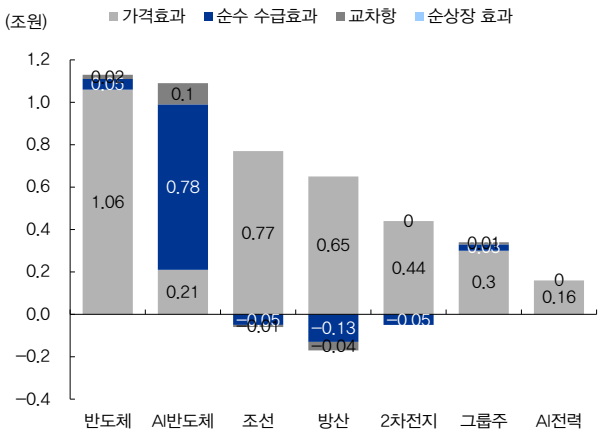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 CY26은 연초이후 2026년 1월 14일까지의 NAV, Shares 활용

국내 주식형 ETF 테마별 성과 분석(CY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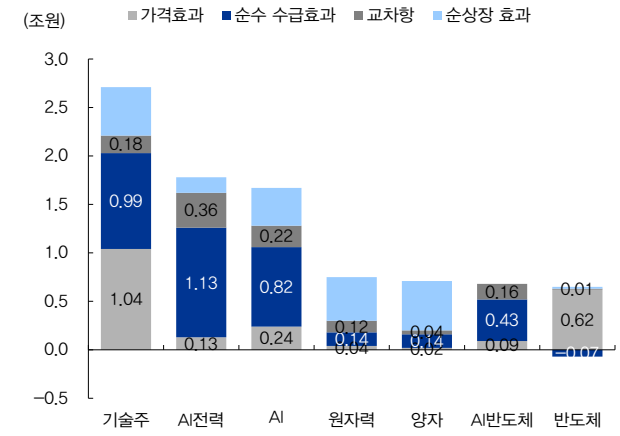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국내 주식형 ETF 테마별 성과 분석(CY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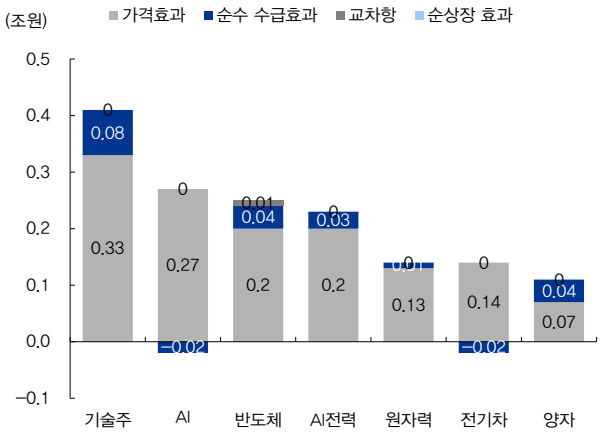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 2026년 1월 14일까지의 NAV, Shares 활용

해외 주식형 ETF 테마별 성과 분석(CY25)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해외 주식형 ETF 테마별 성과 분석(CY26)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 2026년 1월 14일까지의 NAV, Shares 활용